

“대중공사는 우리사회 소통의 대안이다”

부산시-불교연합회 공동 송구영신 연등축제 연다

9차례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원만회향 ‘자축’...향후방향 모색

“지난 1년간 나이, 지위, 승속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하고, 도반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나와 다른 견해를 존중하는 대중공사의 전통을 살려 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직 대중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한계도 있고 고쳐야 할 점도 많지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온 공동체 전통을 더 굳건히 하여 미래를 향도할 진리의 등불을 밝혀 나가겠습니다.”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추진위원회의 주최로 지난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린 100인 대중공사 회향식에 참석한 200여 사부대중은 한 마음으로 발원했다. ‘대중공사, 이야기 꽃밭이어라’를 주제로 열린 이날 회향식은 올 한해 총 9차례 걸쳐 진행된 대중공사의 원만한 회향을 자축하고 향후 대중공사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특히 회향식에서 사부대중은 서로에게 감사의 꽃을 전달하는 꽃밭만들기 퍼포먼스를 통해 그동안 대중공사에 참가했던 노고를 치하하고 회향을 축하했다. 이어 9차례 대중공사에 빠지지 않고 참가했던 정진 위원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대중공사 진행에 도움을 준 공주 한국문화연구원, 서울불광사, 불교TV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를 재집을 짓는 것이 아닌 헌집을 리모델링하는 어려운 불사로 여기고 종단이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5도만 바로잡자는 심정으로 시작했다”며 “매년 개선해 나간다면 5년 후, 10년 20년 후에는 우리가 걸어가는 바로 정면에 종단의 희망과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대중공사는 소통의 대안이다. 사부대중들의 의견을 여과 없이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며 “100인 위원들이 경험을 살려 가정과 직장, 사찰과 단체에서, 대중공사의 꽃을 피워 미래를 만들어 가자. 내년에는 전국으로 열기를 더하여 교구본사와 지역에서 도 단계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대중공사 공동추진위원장 도법스님은 “대중공사 평가 설문조사 90% 이상이 대중공사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대중공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그동안 대중공사가 그릇과 도구를 만드는, 사판의 문제에 집중해왔다면 앞으로는 그릇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이판의 문제까지도 대중공사에서 다루어 이판과 사판이 원용무애한 한국불교를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한편 내년도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는 격월 또는 분기별로 하나의 의제에 집중해 진행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으며, 교구본사 및 지역별 대중공사도 확산될 전망이다.

염태규 기자 che11@bulgyo.com



대중공사는 ‘불교의 꽃’

지난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린 100인 대중공사 회향식에 참석한 사부대중이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꽃을 전달하며 환하게 웃었다. 이날 회향식은 9차례에 걸친 대중공사의 원만한 회향을 자축하고 평가를 통해 향후 대중공사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만들어졌다.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작은 설’ 동지, 자비나눔 명절로 자리매김

소록도 경로당 복지관 등 방문 팔죽·달력 나누며 자비행 실천

동지(冬至)는 24절기 가운데 22번째 절기로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로 양력으로는 12월22일 즈음이 이 절기에 해당된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이날을 ‘작은 설’이라 하여 정초에 떡국을 먹고 제사를 지내듯 반드시 팔죽을 쑤어서 새알심을 시식삼아 먹고 사당에 제사를 지냈다. 동짓날에는 팔죽을 쑤어 대문이나 집주변에 뿌리는 풍습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다.

동지에 관한 풍습은 불교계가 그 맥을 잘 이어오고 있다. 불교의식 중에 불상이나 탱화 등을 점안할 때라든가 귀신이 들려 병을 앓는 사람을 치유시키는 구병시식 때에도 팔을 뿌리는 데 이는 샛된 기운이나 잡귀를 쫓아내는 의식으로 행하기도 한다. 불자들은 가까운 사찰을 찾아가 부처님 전에 팔죽공양을 올리고 집귀와 병마들의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린다. 사찰에서는 이날 팔죽공양을 제공하며 다음해 달력을 나눠주기도 하고 이웃에게도 자비행을 베풀며 신심을 다진다.

동지와 불교에 얽힌 설화는 나한신앙과 깊게 연관돼 있다. 나한도랑에는 대개 사찰에서 팔죽을 끓이는 과정에서 나한님이 일으키는 신이(神異)한 영험이 전해지기도 한다. 불교민속학자 구미래 씨는 “불교계에서는 동지를 새해 시작의 의미로 중요시하고 있으며 팔죽공양을 만발공양으로 승화시켜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아름다운 계기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도 전국 사찰에서는 팔죽공양과 나눔실천행으로 동지의 의미를 되새긴다. 광주 무각사(주지 정학스님)는 지난 18일 소록도에서 김장김치를 전달하면서 동지팔죽을 나누는 행사를 가졌다. 공주 마곡사(주지 원경스님)는 오는 22일 동짓날 당일 공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팔시루떡 1000인분을 나눠줄 예정이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수불스님,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도 같은 날 범어사 안국선원 흥법사 전태종 삼광사 등 연합회 소속 주요 사찰들이 나서 시민들에게 팔죽을 보시한다.

불우이웃을 위한 ‘작은 설’을 지내는 사찰도 많다. 부산 흥법사(주지 심산스님)는 동사무소, 관내 노인정에서 이웃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팔죽나눔 행사를 연다. 한국과 일본 프로야구를 평정하고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 중인 이대호 선수와 함께 해마다 동짓날 청소년 돕기 행사를 펼치던 부산 원오사(주지 정관스님)는 올해도 이선수와 함께 동지를 보낸다.

서울 국제선센터(주지 탄웅스님)와 화계사(주지 수암스님) 등도 동짓날 팔죽을 준비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눈다.

박부영 여태동 하정은 이경민 기자

“평생 공부에 대한 한 인재불사로 회향하고파”

여든 넘은 노보살 1억 기부

여든이 넘는 노보살이 인재불사를 위해 써달라며 모두 1억원을 기부해 눈길을 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따르면 변금연(사진) 할머니는 지난 8일 자녀와 함께 학교를 찾아 장학금 9000만원을 기부했다. 변 할머니는 지난 11월에도 학교에 1000만원을 전달했다.

평생 사찰 공양주로 살아오다 기도와 불사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변 할머니는 지난 11월3일 처음 동국대를 들러 시주 지원에서 1000만원



을 내렸다. 그 뒤 학교의 불교 건학이념을 듣고는 인재로 키우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9000만원을 쾌척, 모두 1억원을 기부하기에 이르렀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할머니의 범명을 따서 ‘정진인정학회’를 설립하고 인재 양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변 할머니는 “평생 공부에 대한 한을 불교인재 양성하는 인재불사로 회향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자녀들도 참 좋은 일이라고 해서 다시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계영 총장은 “인재불사의 큰 뜻을 받들어 지혜와 자비정신을 갖춘 인재로 키우는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전통문화사진 소장하고 계시나요? 디지털 아카이브로 그 가치를 높여드리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폭넓게 간직하고 함께 공유하고자 ‘한국 전통문화사진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전통문화사진을 감상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공익적 사업입니다. 한국전통문화를 함께 향유하는 큰 발판이 될 아카이브 구축에 많은 동참을 기다립니다.

- 동참 안내 -
- 대상 | 대한민국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사진 및 필름, 디지털 파일
- 유·무형의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는 사진 / 예) 사찰, 명승지, 전통놀이, 세시풍속, 문화경관, 무속, 불교문화 및 문화재 등
- 근·현대 사료적 가치가 있는 사진
- 기타 대상에 포함되는 사진

원본사진은 최상의 디지털 파일로 만든 후 소유자를 명시해 등록하고 디지털파일을 포함하여 되돌려 드립니다.

절차

기증의사 접수 · 접수사이트 www.ktda.kr · 기증안내 및 자료조사(상태, 가치 등)	→	심의 및 인수 · 소정의 절차에 따름	→	아카이브에 등록 · 필요에 따라 디지털 진행
---	---	-------------------------	---	-----------------------------

문의 | Tel. 02)2011-1770, 접수 사이트 www.ktda.kr